

= (직장정화운동수범사례) =

솔선수범의 결의로 工員의 自願

포장·상차작업등 서슴없이 처리 家庭化분위기 조성, 명랑사회 先導

서울농약주식회사 노 봉 희

국가적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사의 새장을 여는 중대한 시기를 맞아 당사는 1980년 8월 29일 정화결의문과 정화운동추진요강을 확정, 시행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국민총화 단결의 저해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퇴폐풍조의 일소는 물론이지만 우선 기업내에서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변의 잡다한 일부터를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근면하는데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

스스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고 더불어 여가를 틈내거나 휴가 및 결근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꾸어 직접 협동심을 발휘, 거들어 주

는 것이다.

기제조작은 주로 기능사원이 맡아 하고 있지만 제품포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수동적인 작업은 공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협동·애사정신」에 투철하고 「솔선수범」의 결의로 다져져있는 전 직원은 공원으로써의 마음가짐도 철저히 갖추어져 자주 결근하는 공원의 자리를 서슴없이 마다 않고 자원하여 포장작업에서부터 제품을 차에 실는 상차작업에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장 출퇴근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도 바로 근검·절약의 결의와 다짐에서 우려나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확고한 정신무장과 참여의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울러 이를 밑받침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매일 아침 작업에 임하기 전에는 전 직원이 참여, 전일의 작업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간략하게 의논하여 개선방향을 하나 하나씩 시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는 비록 감독이 다소 불충분하고 또는 소홀했다 하더라도 겸사의 미비함 및 포장의 허술함이 공정자체에서 수정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또한 회사물건 아껴쓰기운동은 「우선 가까운데서 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면장갑등 소모품류의 아껴쓰기운동을 전개하였다.

면장갑, PVC장갑, 고무장갑, 마스크류는 회사작업공정상 필수적이므로 다량이 소모되게 마련인데 우선 2번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후 반쯤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였고 매월 재사용분까지 사용실적을 구분해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했다.

한편 직장분위기를 내가정과 같이 화목하게 유지하기위한 노사대화회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대화에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항상 참석하여 노사간의 화목과 이해증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이 대화의 자리야말로 「下意上達」 「上意下達」의 가교로 크고 작은 애로사항의 토론장이며 해결의 자리로 확대, 정착되고 있다.

더불어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이웃돕기운동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직장정화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확정짓고 우선 금년 8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새마을교육대상자 20여명을 선발, 신청하였으며 교육생들의 귀사후 활동이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

우리의 직장정화운동추진결의는 국민총화단결의 1차적인 차원에서 내직장 내가정의 안락을 통해 사회명량화 및 정의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작은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더불어서적 추방하여
맑은사회 이룩하자
정화추진위원회
농약공업협회